

POLITICS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강기정 시장 “지역 성장하면 대한민국이 성장”

“광주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채은지 “국가가 응답할 차례”

채은지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사진)은 23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광주의 7대 공약이 반드시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은 광주시민의 저항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광주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기 대선에서 광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인 87.2%를 기록하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최전선에 섰다”며 “이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금이야말로,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광주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 달라”며 강하게 요청했다. 채 의원은 이를 위해 광주시에 정파와 당을 초월한 ‘범정치세력 TF’를 구성해 실질적 대응과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 광주 시민들에게는 광주 공약에 대한 관심과 온라인 국민제안 플랫폼 및 SNS를 활용해 광주공약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제일선 정책 파트너로, 광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시민의 염원이 실현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1980년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2025년의 광주는 내일의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시, 직장 생활 적응 교육
내달 1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광주시는 청년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과 청년 신입직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하반기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23일부터 7월18일까지 모집한다.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자 및 청년 신입직원에게 직장적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기업 관리자를 위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 청년 직원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교육’으로 구성된다.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기업 현장방문 교육으로 진행하며, 참여인원이 적은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하는 혼합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및 조직관리, 신입직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및 힐링프로그램 등이며, 기업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직장 생활에 유용한 물품이 담긴 키트가 제공된다.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관리자와 입사 3년 이내 15~39세 신입 청년직원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광주경제자유협회 전자우편(gjef_gjef@naver.com)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교육은 8월부터 10월 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사업 운영기관인 광주경제자유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시도지사협 호남권 토론회서 신성장론 역설
지방자치 30주년 지방분권 강화 등 논의도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며 “지역이 성장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신 성장론이야말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발전전략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남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 RE100 등 새로운 시대의 성장은 어떻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통해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더는 수도권 집중방식의 획일적 성장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시대를 앞서 인공지능(AI)을 택한 것처럼 지방정부는 버릴 것은 버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으로 진

정한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의 AI산업은 광주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어갈 기회이다. AI 1단계 사업으로 이미 전국 900여개 기업이 광주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산업을 키워 대한민국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실제 사례이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에서는 교통망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권

형 개편과 지역균형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개회식과 특별대담,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대담은 시도지사협의회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여해 ‘새 정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1부 특별대담에 이어 2부에서 지역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진단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

벌 보호무역 동향과 지역 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이어 조성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장동력사업센터장, 이지훈 전북연구원 주축·신산업팀장, 박용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은 주식회사 에스씨코 리에이티브 대표,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에 적합한 핵심적 정책현안을 주제로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충청권 4개 권역별로 정책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권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출마...‘친명 선명성’ 경쟁

정청래 “신명 바칠 것”
박찬대 “검증된 원팀”
“네거티브 자제” 요청

3선의 박찬대 의원이 23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발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4선의 정청래 의원과 함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두 사람의 선명성 대결로 치닫는 모양새다. 과연 누가 첫 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원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앞서 단상에 올라 있다.

히 소통하며 안정적인 당정관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이고,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라며 “이미 검증된 이재명-박찬대 ‘원팀’이 앞으로로 원팀으로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결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결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만년)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라며 “정치를 한 20년 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랑 일했던 시기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두 당권 후보 모두 이 대통령에 당 대표를 역임할 당시 함께 당 지도부로서 호흡을 맞춰 왔다는 것이 강점이다. 따라서 이번 당권 레이스는 집권 초반의 이 대통령과 함께 개혁 입법 수행과 야당과의 협치에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는 데 누가 더 적합한가에 경쟁이 켜진다. 특히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져, 당원들의 마음을 더 얻어야 한다는 점도 이 같은 선

광주시, 공공주도 ‘소버린 AI’ 확보 총력전

시의회에 ‘2025 제1회 추경’...AI 중심도시 광주 청신호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AX실증밸리 에타 면제 등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주도형’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가 순조롭고, AX 실증밸리 사업의 에타 면제도 추진 중”이라며 “광주는 이를 기반으로 ‘제조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소버린 AI (국가 또는 조직이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에서 “투표율 전국 1위로, 이재명 정부 탄생을 이끈 광주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AI 중심도시 광주’ 실현의 속도를 더욱 높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2018년 AI를 선택한 후 국가AI데이터센터와 AI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인프라·기업·인재 구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도시이다”며 “이런 준비와 노력의 결과로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올산에서 추진된 민간주도형 AI데이터센터와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주도형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사업 에타 면제 등을 이끈 광주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재명 정부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신속한 3특검 출범으로 유엔된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고,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코스피도 3년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면서 경제회복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설계하는 시간이자 광주의 5년, 그 이상이 함께 결정되는 시간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은 매일 낮선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창의적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광주에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확신한다. 광주에 이익된 방향으로 함께 힘 모아주시면 위기를 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국방우주·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고흥서 전문가·기업·도민 등 150여명 참여 심포지엄

전남도는 23일 고흥 쉼밸리 리조트에서 2025 전남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어 전남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과 국방우주 분야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러·우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우주와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고흥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항공산업과 광양만권의 소재부품산업 특화 강점을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순천에서 첫 방위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고흥에서 방위산업 전문가,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

관,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방위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 우주 강국의 시작, 우주 방위 산업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기초강연에서는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 ‘첨단 방위산업의 미래와 지역 전략’을 주제로, 방위산업 지방 분권화와 지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윤선중 국방기술품질원 박사가 ‘국방우주 품질관리 방안’을 주제로 국방우주 분야 표준체계를 소개하고, 기술역량 확보가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역설했다. 또한 전남도에서 ‘전남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K-방산의

새로운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한 4대 추진 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전략은 순천, 고흥을 중심으로 한 국비 245억원 규모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방위산업청) 유치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우주·항공과 소재 부품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우주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방산혁신 클러스터엔 2020년 경남 창원, 2022년 대전(드론특화), 2023년 경북 구미(유무인 복합체계)가 각각 선정됐다. 종합토론에는 국방우주 분야 전문가 6인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양현상 한국국방융합기술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국방우주 산업의 미래 전망,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전남의 역할, 지역 기업의 참여 전략 등을 중심으로 열린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 광주시당, 내일 ‘당원자격심사’ 설명회
입당·복당 신청 자격 절차·주의사항 등 안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5일 오후 4시 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당원자격심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에 참여할 당 소속 핵심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입당과 복당 신청 자격, 절차 등과 당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설명한다. 입당·복당 원서 제출 시 주의 사항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당의 정당·정책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시민의 입당을 원활하게 하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광주시당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과의 접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